

전영훈

난 지 극히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 한 날 부르서
 서 간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 지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
 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 해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
 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 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
 지 살아 도주를 위해 죽어 도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
 것 십자가 의 능력 십자가 의 소망 내 안에 절만 사시는
 것 난 지 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